NS홈쇼핑, 오늘 '하동관의 하동가곰탕' 판매

NS홈쇼핑이 24일 오후 5시50분 하동관과 공동 기획한 '하동관의 하동가곰탕'을 판매한다. 담백하고 맑은 국물에 우사태와 우양지를 푸짐히 담았다. 국내산 대파, 양파, 무의 깔끔함을 더해 하동관에서 맛볼 수 있는 맑고 담백한 국물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실온보관이고 1팩 700g의 넉넉한 용량이 특징이다. 정정욱 기자



비즈 프리즘 | '메리 배라스마스' 당신을 위한 배스킨라빈스 신제품

"올 연말은 '월리'와 함께 홈파티 즐기세요"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배스킨라빈스만의 감성을 살린 연말 캠페인을 운영하고, 색다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해 소비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올해는 인기 그림책 캐릭터 '월리'와 손잡고 '메리 배라스마스' 캠페인을 선보였으며, '월리를 찾아라' 콘셉트를 적용한 신제품과 굿즈들을 공개했다. 집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쾌하고 즐거운 재미를 선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탓에 '집콕'해야만 하는 요즘, 홈파티·홈캠핑을 계획 중인 소비자를 위해 배스킨라빈스가 선보인 제품들. '월리를 찾아라' 콘셉트를 적용한 '월리 캠핑 폴딩 카트'(왼쪽), 맛에 재미를 더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운데)와 '월리 자동충전식 캠핑 에어 매트'. 사진제공 | 배스킨라빈스

'월리를 찾아라' 케이크·굿즈 출시
케이크 띠지에 월리 찾는 재미 더해
폴딩카트 등 홈캠핑 제품도 인기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홈파티에 딱!

배스킨라빈스는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24종을 선보였다. 메인 케이크는 3종으로 '월리를 찾아라' 콘셉트를 적용해 움직이는 큐브와 굴뚝, 돋보기 소품 등 숨은 요소를 찾아내는 재미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은 '홀리데이 위드 히든 큐브(2만9000원)', '홀리데이 위드 해피 하우스(3만1000원)', '홀리데이 위드 스윗 캐치(3만 원)'로 구성됐다. '홀리데이 위드 히든 큐브'는 정육면체의 큐브 케이크로, 케이크 하단의 받침대를 좌우로 움직여 열면 케이크 속에 숨겨진 월리 피규어를 만날 수 있는 제품이다. 눈이 덮인 굴뚝 집 모양의 '홀리데이 위드 해피 하우스'는 굴뚝을 잡아 올리면 달콤한 초코볼이 나타난다. '홀리데이 위드 스윗 캐치'는 반구 형태의 투명 돔으로 케이크를 덮고 상단에 작은 돋보기 소품을 올린 2단 케이크이다. 돋보기를 사용해 케이크 띠지에 그려진 월리와 친구들을 찾는 재미를 더했다.

●월리와 만나 특별해진 배라 굿즈

배스킨라빈스는 '메리 배라스마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월리를 찾아라' 콘셉트를 배스킨라빈스만의 감각으로 구현한 굿즈 3종을 선보였다. '월리 홀리데이 기프트북'과 '월리 자동충전식 캠핑 에어 매트', '월리 캠핑 폴딩 카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에어 매트와 폴딩 카트는 홈캠핑이나 여행을 떠난 듯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월리 자동충전식 캠핑 에어 매트'는 마개를 열면 공기가 스스로 유입돼 간편하게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용 만점 아이템이다. 추가 매트를 연결해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별도 수납 패키지도 마련되어 실용성을 더했다.

'월리 캠핑 폴딩 카트'는 캠핑은 물론, 일상에서 짐을 운반하거나 탁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7일부터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행사 시작 첫날부터 해피앱이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오프라인 행사는 21일부터 진행 중이다.

SPC그룹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올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배스킨라빈스 케이크로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월리 굿즈로 캠핑을 온 듯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프리카TV '2020 BJ대상' 오늘 온라인 개최

아프리카TV는 24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핫식스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미르4와 함께하는 2020 아프리카TV BJ대상(이하 2020 BJ대상)'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BJ대상'은 2011년에 처음 시작된 아프리카TV의 시상식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아프리카TV는 매년 BJ대상 시상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시상식은 BJ대상, 부문별 올해의 수상 BJ, 신인상, 특별상, 최고의 콘텐츠상, 스폰서상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올해의 수상 BJ'는 '게임' 카테고리의 9개 부문과 '보이는 라디오' 카테고리의 11개 부문 등 총 20개 부문에서 각각 5명의 BJ가 선정됐으며 유저 투표 40%와 방송 지표 30%, 콘텐츠 심사 30%를 합산해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씩은 24일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시상식은 아프리카TV BJ대상 공식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휠라 '2021 백투스쿨 백팩 컬렉션' 선보여



휠라가 '2021 백투스쿨 백팩 컬렉션'을 출시했다. '어드밴스드 라인(카본, 이지스)'과 '오리진 라인(포스21, T팩21, 링크21)'으로 구성했다. 군용재킷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극대화했으며, 항균 기능을 함유한 안감 소재로 위생에도 신경을 썼다. 또 오거나이저 시스템을 적용해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등 다양한 소지품 수납이 가능하다. 편안한 착용감, 트렌디한 디자인, 실용성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나선다



롯데홈쇼핑이 환경부,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도심 녹지 조성을 통해 저탄소 전환에 기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총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친환경 녹지 공간 '숨;편한 포레스트'를 조성한다. 이곳에 미세먼지를 직접 흡수·흡착하는 시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 등 저감회피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편의시설과 산책길도 조성해 쾌적한 도심 속 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산타도 비대면으로"…코로나19가 바꾼 유통가 크리스마스 풍경

롯데百, 마스크 팝업스토어 운영
올리브영, 8㎡ 당 1명 입장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유통가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바꿔놓았다.

정부의 '5명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집콕 크리스마스'가 현실이 된 영향이 크다. 먼저 코로나19 히트템인 마스크 팝업스토어가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31일까지 본점 지하 1층에서 마스크 브랜드 빅웨일즈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항균 원단과 신축성 소재에 화려한 디자인을 입힌 기능성 마스크, 스포티한 디자인의 마스크 스트랩을 선보인다. 당일 2, 3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마스크필터 10개와 마스크 스트랩을 증정한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강좌'도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현대백화점은 온라인 문화센터 '컬처클래스'를 통해 '크리스마스 트래디셔널 생화 리스 만들기', '자연 소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등 크리스마스 강좌를 진행 중이다.

크리스마스 대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매장 입장 인원 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헬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은 22일부터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인 식당 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매장 안전 강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TV홈쇼핑에서는 비대면으로 만나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등장했다. 롯데홈쇼핑은 27일까지 방송을 통해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 마을 산타가 보낸 영상편지를 공개한다. 윤지환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고객을 응원하고 집콕 크리스마스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진짜 산타가 등장하는 이색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코로나19 여파가 유통가 크리스마스 풍경을 바꾸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온라인 문화센터 강좌.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제2의 영구치' 임플란트, 내게 딱 맞는 치과 찾으려면?

나날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2의 영구치'라고 불리는 임플란트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치과가 넘쳐나는 만큼 치과 선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임플란트는 기능을 상실한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치아다. 이를 통해 치아가 상실된 빈자리 염증이나 입냄새, 잇몸질환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색과 모양, 크기 등 심미성을 개선할 수 있어 대중화된 치료로 꼽힌다.

이에 여러 임플란트 수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치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시술을 해야 한다. 사람마다 구강구조, 치열상태, 잇몸뼈, 잇몸재생력, 구강질환 등이 다르기 때문에 3D스캐너와 3D CT와 같은 전문 의료장비가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과 검사를 소홀히 했을 경우 비싼 수술임에도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과 잇몸 절개가 두려운 사람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라면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네비게이션 수술이 되는 치과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악동 거상술이나 실패한 임플란트의 재식립처럼 고난도의 수술이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상악동 거상술은 상악 어금니가 오랫동안 상실하거나 잇몸뼈 폭이 좁은 경우, 치주질환으로 잇몸뼈 손실인 큰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이다.

임플란트 치료는 티타늄 고정체를 턱뼈에 식립해 뿌리를 만든 뒤 인공치아를 장착하는 방식이므로 기존 자연치아와 잇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야간에 진료 가능한 치과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인천 강남365치과 송도글로벌점 **김태곤** 원장

엄지발가락 휘고 발에 통증 느끼면 '무지외반증' 수술 고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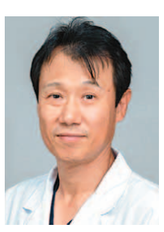
무지외반증은 '무지'라 불리는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점차 휘고, 엄지발가락 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면서 걸을 때 발에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일컫는다. 대부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 원인이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남성의 경우 키높이 신발이나 깔창을 넣는 등 발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무지외반증은 한번 엄지발가락 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출하기 시작하면 주변 조직손상까지 확대되면서 발바닥, 발등 전체까지 통증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 자연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한번 휘어진 뼈를 교정하기 위해선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다. 무지외반증 교정기가 많이 출시됐지만, 보조기 이용인 돌출된 부위를 완화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그친다.

만약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가 아프거나 오래걷기에 불편하거나 신발 신기에 불편한 경우,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못 받아 다른 발가락 밑에 통증을 유발하는 굳은살이 생길 때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변형된 발을 절골술과 박리술을 통해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의 정도와 나이, 골밀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대개 한쪽 발을 먼저하고 반대 쪽을 3개월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양측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큰 차이가 없어 입원해서 4~5일 간격으로 양측을 수술하기도 한다.

수술 후에는 지속적인 관절 운동이 필요하며, 발볼이 넉넉하고 쿠션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을 권한다. 수술 6주 후부터 정상보행 및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족부병원 최경진정형외과 **최경진** 원장